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2 DECEMBER
Vol.239

**Good Bye 2022!
Happy New Year!**

삼정  KPMG

COVER STORY

수고했어요 2022!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세요



Adieu 2022!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시간 여행이다.
매일매일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이 멋진 여행을 만끽하는 것이다.
- 영화 '어바웃 타임' 중

2022년이 저물어갑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멋지게 살아온
삼정인 가족 여러분 올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다가오는 2023년에도 함께 웃을 날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CONTENTS

DECEMBER 2022 Vol.239

삼성KPMG 뉴스레터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

삼성별그램 20

Good-Bye 2022,
올해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People First I 22

회의실 명칭 자녀 초청 행사
“야호! 엄마, 아빠 회사에 내 이름이!”

People First II 24

일과 삶의 균형으로 행복 찾기!
법인 제공 콘도에서 휴식하며 에너지 얻어요!

삼성인터뷰 26

나눔 온도 Up!
나누면 행복이 두 배

이동규의 두줄칼럼 28

감사의 위력

心 Care 30

내 마음의 거울을 보는 시간
자신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Samjong News 32

‘납세자축제’에서 ‘납세자권익대상’ 수상 외

건강한 성장

04 2022 TOP NEWS

삼성인이 직접 뽑은 2022년 Top News!

08 Emerging Trends

COP27 리뷰와 국내 기업에 주는 메시지

10 Market Reader

다가오는 폐기물 재활용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전략은?

12 Team Story

자본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14 Client+

아시아 프롭테크 리더로 성장 중인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

16 Expert's Advice

변화된 IFRS 재단의 지배구조와 그 시사점은?

17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04p



12p



22p



24p



삼정인이 직접 뽑은 2022년 Top News! 최다표를 얻은 10대 뉴스 공개

2022년 삼정KPMG의 Top News는 무엇일까? 12월호 'Channel'에서는 삼정인들이 직접 뽑은 10대 뉴스를 선정하고자,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삼정인들은 어떤 소식을 10대 뉴스로 선정했을까? 삼정인이 뽑은 2022년 10대 뉴스와 함께 2022년 삼정KPMG를 되돌아본다.

#1 GFC 내 모든 업무 공간 '스마트 오피스'로 오픈

인재가 편안히 머물며 성장하는 최고의 환경을 위해 강남파이낸스센터(GFC) 7개 층을 스마트 오피스로 새 단장했다.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조한 공간으로 수평적인 소통과 혁신을 이뤄가고 있다. 최근 '한국FM(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학회'가 주최한 '한국FM대상'에서 '스마트 오피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2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 우리금융 감사 수임! ... 감사인 자유 선임 경쟁 우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 우리금융, 대한항공 등 최고 기업들이 삼정KPMG를 감사인으로 선택했다. 이는 전문성과 감사품질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성취이다.



#3 Vision 2025 순조로운 첫 출발! FY2021 Big4 중 최고 성장률 달성

FY2021에 높고 균형 있는 23% 성장으로, 6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이뤘다. 또한, 5년 연속 Global Board Country 중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4 구성원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미국, 영국 등 해외 연수 재개

코로나19 완화로 하늘길이 열리며, 3년 만에 구성원들의 해외 연수가 재개됐다. FY2022 S.Manager 승진자들의 미국&영국 연수, GEP(Global Elite Program) 우수자 영국 연수가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5 최우수 ESG 주관사 선정 ... 업계 최고 ESG 전문가 그룹 인정

지난 1월, 삼정KPMG가 '제19회 대한민국 IB대상'에서 '최우수 ESG 주관사'로 선정되며 업계 최고의 ESG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받았다. 아울러,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한 'ESG 경영 포럼'과 '한국전자전(KES) 2022'에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공동 주관한 ESG 전환 세미나, ESG 특별관 운영, ESG 혁신 챌린지 대회 후원 등 올해도 기업들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6 자라가 공인하는 M&A 자문 리그테이블 최강자

지난 1월 26일 언론매체 더벨이 주최한 '2022 Korea Capital Markets thebell League Table Awards'에서 'Best PE Seller', 'Best PE Buyer' 두 부문 모두 수상했으며, 2022년 3분기 더벨 인수·합병(M&A) 금융자문 부문 리그테이블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M&A 자문 리그테이블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7 '제1회 삼정KPMG 챔피언십 골프 대회' 개최

법인 생활 속 즐거움과 재미를 찾기 위한 삼정KPMG 임직원 골프 대회를 첫 개최했다.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참여 이벤트 진행- '롱드라이브 챔피언십' 및 포토존, 승부 맞히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개최돼 열띤 호응을 얻었다. ▲초대 챔피언 - Tax5·6본부, ▲준우승 - Deal Adv2본부, ▲3위 - Deal Adv4본부, ▲4위 - B&F3본부로 대회가 마무리됐다.



#8 KPMG, '아시아 최우수 리스크 컨설팅펌' 선정

KPMG가 리스크 관리 전문매체인 리스크닷넷(Risk.net)이 주최하는 '아시아 리스크 어워즈 2022(Asia Risk Awards 2022)'에서 '올해의 아시아 리스크 컨설팅펌'으로 선정됐다. KPMG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 고객에 전문적이고 통찰력 있는 리스크 관리 자문과 함께 바젤3 시장리스크 규제체계(FRTB, Fundamental Review of the Trading Book) 구축 능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9 MZ가 선호하는 법인! 8년 연속 신입 회계사 최다 채용

MZ세대가 가장 많이 선택한 법인으로 8년 연속 신입 회계사를 최다 채용했다. 신입 회계사 390명을 새 가족으로 맞이했으며, 컨설턴트도 40여명을 공개 채용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3년 만에 신입 회계사 입문 교육을 2주간 대면으로 진행했다.

#10 People First: 진심을 담은 인재 존중 위한 다양한 노력

구성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People First-인재 존중 문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구성원 소속감 향상과 가족들의 의미 있는 추억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에 자녀 이름 회의실 명칭 선정 이벤트를 진행, 총 134개의 자녀 이름이 회의실 명칭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지난 11월에는 스마트 오피스 회의실 명칭에 선정된 구성원들과 자녀, 가족들을 초청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지난 7월에는 중·고등학생 자녀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임직원 자녀 초청 특강'도 개최했다. 이외에도 모든 임직원에게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증정 이벤트, 구성원들의 워라밸 향상을 위한 법인 콘도 예약 지원 확대 등을 새롭게 진행했다.



삼정인의 생각!
제가 생각한 올해의 뉴스는요~?

다시 바뀌는
회계업계 지형...
2강 구도

감사방법론 KCw 전면
도입으로 감사품질의
글로벌 Standard 확립

코로나19 완화로
헬스키퍼 서비스 예약
시스템 Open!

중·고등학생 자녀 초대
세미나: 자녀의 성장에
스스로 동기부여가 됨

파란행복
디카페인 메뉴 추가!

BLS (Beautiful Life
in Samjong Program)
사용처 확대

ERI에서 준비한 신규 산업
자료들이 업무 진행 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야근 식대 및
통신비 지원
금액 인상

우리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
시스템인데, 올해 교육
구성들이 정말 알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성과급의 200%를 보장하는 계약을
진행한 것도 직원들의 대우가 크게 개선된
주요 소식인 것 같습니다.

한공회 수습 회계사 연수
성적 우수자 비율이 4대
법인 중 1등으로 알고 있는데
자랑스럽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신입 대면 교육!
알찬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주셔서 즐거운 합숙 연수 기간이
되었습니다.

복지 향상을 위한
간식 다양화!
아이스크림 제공,
특별 간식 제공 등

신입 회계사 최대
채용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 파트너 영입
소식도 놀라웠습니다.





COP27 리뷰와 국내 기업에 주는 메시지



‘이행 COP’와 ‘손실과 피해’로 주목받은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약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1월 20일 폐막했다. COP27은 당사국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대표 결정문을 두고 막바지 협상에 진통을 겪으며 마감 시한인 11월 18일을 이틀 넘겨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했다. 이번 호에서는 COP27에서 다뤄진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COP27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고찰해본다. 또한, 국내 기업이 ESG 경영 방향성을 검토할 때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를 살펴본다.

Emerging Trends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P27, 주요 논의 사항은?

‘COP’는 당사국 총회라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어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의미한다. 아울러 COP27의 숫자 27은 총회의 회차를 뜻한다. 이 총회는 1995년부터 매해 개최돼 올해 27회를 맞이했다. 올해는 이집트의 샤름엘셰이크에서 개최됐으며, 주요 의제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안 유지,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 및 연간 1,000억 달러 지원 재확인,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국제 탄소시장에 대한 기술지침 마련 등이다.

먼저, 당사국들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다. 다른 화석연료까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전원 동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생태계의 적응(Adaptation) 능력을 넘어선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와 추가 손실방지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 설립에 합의하고, 향후 적응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방법론도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진국이 COP16에서 약속한 연간 1,000억 달러의 적응 지원금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재확인하면서, 2025년 이후 새로운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논의도 시작했다.

한편, COP27에서는 처음으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가 공식의제로 채택됐다. 개도국은 해수면 상승, 태풍, 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비경제적 손실 비용에 대해 선진국의 ‘지원’이 아닌 ‘보상’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총회에서 신규 기금 설립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것이다. 끝으로 국제 탄소시장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기술지침들이 논의됐다. 이는 탄소시장의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칙들을 의미한다.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국가 초기보고서 양식, 감축실적 등록 시스템 개발 사항 등이 일부 확정됐고,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의 인정 사업기간 및 감축실적 신청 절차 등이 마련됐다.

○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역사상 첫 ‘손실과 피해’ 보상 합의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2100년까지 1.5°C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고, 역사상 최초로 개도국이 지난 30년간 요구해온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 합의를 이룬 것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

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6차 보고서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이 2040년 이내에 1.5°C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기존 목표의식을 전 세계가 다시 공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또한 손실과 피해 관련 신규 기금 설립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실효성을 보다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기금 조성주체, 규모, 보상 범위 등의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총회를 위한 숙제로 남아있으며 단순히 별도 기금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선진국의 분명한 의지와 현실가능한 일정 수립이 중요할 것이다. COP27 최종 합의문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의 지구는 아직 응급실에 있다”는 말로 보다 과감하고 시급한 탄소 감축 대응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탄소중립 동참하는 기업들의 고려 사항은?**

COP27 최종 합의결과와 주요 국가기관의 Key Message를 종합할 때,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ESG 관련 정보 공시 의무화, 지속가능개발체제(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 SDM)로의 전환, 탄소국경세 시행에 주목하여 ESG 경영의 방향성을 검토해야 한다. EU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le Reporting Directive, CSRD)의 적용, 미국은 기후리스크공시법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2025~2030년 내 ESG 공시 의무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해외로 나가 탄소 감축사업을 실시할 경우 기존의 청정개발체제가 아닌 지속가능개발체제에 기반해야 하며, 2023년까지 기존에 발급받은 크레딧에 대한 전환신청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적용업종이 추가된 EU의 탄소국경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도입 단계별 대응전략 수립도 필요하다.

그동안 탄소 감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왔던 EU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연방 정부 조달업체에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를 요구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권으로, 대외적으로는 높은 기후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해외 주요 기후 연구기관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주범국’으로 지목될 만큼 탄소 감축결과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탄소중립 트렌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의 개발과 내/외부 상황을 고려한 체계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COP27 리뷰: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 주요 내용

COP27 당초 폐막일(11월 18일)을 이틀 넘긴 11월 20일 오전 10시경(이집트 현지시간 기준)에 최종합의문인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을 채택하고 폐막

-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기금 설립**
선진국-개도국 인사들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를 설립하여 기금의 제도적 장치 마련, 기존 재원 확장 방안 등에 대한 논의 예정
- **전 지구적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립**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작업프로그램(GlaSS)을 설립하여 전 지구적 적응에 대한 평가지표 및 방법론 개발
- **선진국 기후변화 적응기금 2025년까지 약속 재확인**
2025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 약속, 이후 새로운 재원 조성 목표는 기술전문가 대체제를 통해 논의
- **파리협정 6조 국제 탄소시장 기술지침 채택**
국가 간 자발적 국제감축 협력사업, SDM으로의 전환 지침 등 기술지침 일부 채택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에 대한 코멘트



사메 수크리 COP27 의장(이집트 외무장관)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단결한 끝에 합의문을 만들었고, 고뇌와 절망에 귀를 기울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이번 합의문은 깨져버린 합의를 복구하기 위해 그간 절실히 필요했던 정치적 신호. 그러나 우리의 지구는 아직 응급실에 있다.”



마틴 카이저 그린피스 독일 대표
“이번 합의는 거대하게 벌어진 상처 위에 붙인 조그마한 반창고와도 같다.” 사진 출처: Lucas Wahi, 그린피스



모하메드 아도우 ‘파워시프트아프리카’ 설립자
“처음에는 손실과 피해 보상이 논의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사진 출처: 파워시프트아프리카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C O N T A C T U S

ESG 비즈니스 그룹 리더
이동석 부대표
Tel. 02-2112-7954
E-mail. dongseoklee@kr.kpmg.com



경제연구원 임이슬 책임연구원
Tel. 02-2112-3918
E-mail. yeom@kr.kpmg.com

다가오는 폐기물 재활용 시대를 대비하는 미래 전략은?

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는 소각·매립 등 폐기물 다운스트림(Downstream) 산업을 중심으로 M&A가 활성화되면서, 폐기물 시장의 패권이 극소수 대형기업을 중심으로 압축됐다. 이러한 변화 속에 최근 업계에서는 시장의 관심이 다운스트림을 넘어 업스트림(Upstream) 산업인 재활용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다가오는 폐기물 업스트림 시대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갖춰야 할 미래 전략을 살펴봤다.



세계적인 억만장자 빌 게이츠가 폐기물 시장에 주목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지난 8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이 보유한 포트폴리오가 공개된 가운데, 2022년 2분기 기준 2번째로 큰 투자 비중을 차지한 종목이 미국 폐기물 처리 1위 기업인 'WM(Waste Management)'으로 확인됐다. 또한 빌 게이츠는 지난 2월 미국 폐기물 처리 2위 기업 '리퍼블릭 서비시스(Republic Services)'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기도 하며 폐기물 처리업에 관심을 나타냈다.

국내에서도 폐기물 시장에 대한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 전국에 흩어져 있던 중소·영세 폐기물 처리기업은 활발한 M&A를 통해 SK에코플랜트, 에코비트, IS동서 등 소수의 대형 전략적 투자자를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와 같은 시장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제는 시장의 이목이 업스트림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시기이다.

재활용은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공급망 교란을 야기한 외부 환경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뿐만 아니라 ESG 경영을 현실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상했다. 정부 또한 환경문제와 잔여

매립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순환경제를 강조하며 재활용을 촉진하는 모습이다.

다가오는 업스트림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시점에 우리는 과거에 우리와 유사한 궤도를 지나간 해외 국가의 사례를 통해 대책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우선 이미 대형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 단계를 지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미국은 WM, 리퍼블릭 서비시스, 웨이스트 커넥션스(Waste Connections)로 구성된 빅3 기업이 폐기물 시장의 57%를 점유하고 있다. 이들은 수집-처분-재활용으로 이어지는 폐기물 처리의 전(全) 밸류체인을 완성한 가운데 최근에는 재활용 사업 육성에 보다 집중하고, 폐기물 처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모습이다. 이를 기반으로 미국 빅3 기업은 시장 점유율 확대, 기업가치 상승, 수익성 제고 등 호황세를 누리고 있다.

한편 일본은 섬나라 특성상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으나, 그 대안으로 소각에 주력하여 이미 매립 제로화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국가이다. 일본은 정책적 지

폐기물 업스트림 시대, 국내 기업에게 전하는 4가지 전략

● 전 밸류체인 완성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

- ‘수집-처분-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접목으로 폐기물 처리 디지털화 검토



● 매립 제로화 방안으로 소각열에너지에 주목

- 기업은 소각열에너지 기술을 적극 도입·개발하고 시장 변화에 기여
- 정부는 소각시설 지원 제도 재검토 및 부가가치 창출 방안 모색



●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

- 선도국 기술 투자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 마련
- 폐기물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개도국 시장의 신규 개척



● 중소·중견기업과 전략적 협력 및 기술 지원

- 순환경제 대·중소 상생라운지 활용
- 자본과 기술력 투자 및 공유 활성화로 협력 도모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원 외 유럽의 선진기술을 도입하며 소각열에너지 사업을 선제적으로 육성했다. 이로써 해외 시장에 일찍 진출했고 최근 부상하는 글로벌 폐기물 에너지 시장 내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물론, 국가 에너지 전략 수립에도 소각열에너지를 활용하며 순환경제를 구현하고 있다. 또한 소각시설을 관광시설로 탈바꿈하는 등 고부가가치화하며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창출하고 있다.

그럼 미국과 일본의 전략을 통해 국내 기업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첫째로 미국처럼 수집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전 밸류체인을 완성해야 한다. 또한 시대와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폐기물 처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매립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참고하며 소각에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 기업은 소각열에너지 기술을 적극 도입·개발하고, 정부는 소각시설 지원 제도를 재검토하며 부가가치 창출 방안을 살펴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재활용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를 대상으로는 기술 투자 및 협력을 통해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폐기물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개도국 시장은 신규 개척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자본 투자와 기술력 공유를 활성화하거나 M&A를 통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새 시대의 개막을 대비하여 국내 기업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Deal Adv4본부
이동근 전무
Tel. 02-2112-7764
E-mail. dlee@kr.kpmg.com

경제연구원 전혜린 선임연구원
Tel. 02-2112-7976
E-mail. haerinjeon@kr.kpmg.com



자본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이끄는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지난 2015년 4월, 삼정KPMG는 업계 최초로 국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올바른 역할 정립,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Audit Committee Institute)를 설립했다. 이번 호에서는 동영상 드라마 세미나, 핸드북 및 저널 발간 등 다채로운 활동으로 감사위원과 감사를 지원하며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삼정KPMG ACI를 소개한다.



감사 및 감사위원 지원에 힘쓰는 ACI 파트너와 구성원들이 미소 짓고 있다.

○ 회계 투명성 제고 위한 사회적 책임 더욱 높아져

63개국 중 53위.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평가 회계 투명성 부문에서 한국이 기록한 순위이다. 우리나라가 명목 GDP 세계 10위,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라는 경제적 위상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다.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고,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면서 잠재 성장률이 2%는 오며, 매년 일자리도 10만 개가 더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있기에** **매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는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많은 정책이 제정되고, 개정된다.**

○ 새 길을 개척하며 업계를 선도하는 ACI

삼정KPMG ACI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감사기구 전문기관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ACI가 하는 일들은 대부분 새로이 개척해 나가는 길이다. 우리나라에 지배구조에 관한 연구가 짧은 만큼, 감사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도 흔치 않기 때문이다. ACI는 설립 때부터 법인 내 마케팅, 경제연구원(ERI), 내부감사(IA)에서 ACI 활동에 필요한 전문가를 모집했고, 지배구조 부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연구기관으로부터 인재를 영입하여 내실을 다졌다.

또한 과거의 기관투자자는 주로 기업의 재무적 요소를 중점으로 투자했지만, 일련의 대규모 횡령 배임 사건이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반복되자, ESG 중 G 부분의 감사위원회 활동 충실성을 중요한 투자지표로 활용 중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삼정KPMG는 업계 최초, 감사위원회 전문 연구조직인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우리 기업의 감사위원회 내실화를 통해 회계 투명성 제고와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다.

ACI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먼저, KPMG 네트워크 내 40여 개국에서 축적한 감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와 법·회계·경영 분야 석학이 구성된 ACI 자문교수단의 자문을 받아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발간했다. 감사위원회의 제도적, 운영적 측면에서 감사 및 감

사위원회에 도움이 되는 실무 지침서인 감사위원회 핸드북은 2015년 12월 국내 최초 발간했으며, 2021년 6월에는 3rd Edition을 출판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감사기구 및 지배구조 현안, 그리고 이와 관련된 통계와 사례 연구를 정기적으로 알리기 위한 정기간행물 '감사위원회 저널'을 2017년 1월 첫 발간했으며, 분기마다 발행 중이다.

또한 2015년부터 매년 ACI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00명 이상의 감사 및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감사위원회 세미나로 성장했다. 지난 9월에 열린 '제8회 세미나'는 '감사위원회의 자회사 감독과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주제로 동영상 드라마를 통해 감사위원회 활동을 생동감 있게 준비하여, 법인 최초로 웨비나 1천 명 이상이 참석했다.

뿐만 아니라, 앞선 ACI의 활동이 외부로 알려짐에 따라 2019년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함께 국내 상장사에 배포된 '상장회사 감사위원 직무해설서'를 집필했고, 이어 2020년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함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개정을 주도했다.

ACI 주요 서비스

정보 인적 교류(세미나 및 교육)

- ACI 세미나, Advanced Auditor Program(핸드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감사위원·감사 대상 교육

발간 활동

- 감사위원회 핸드북 2021 3rd Edition, 감사위원회 저널, 월간 뉴스레터, KPMG Global ACI 보고서 등 발간

지식관리 활동

- 약 1,900개 상장사 연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저널 등 저술에 활용)

감사위원회 운영 자문

- Private Session(고객사 방문 강연), Q&A

Board Advisory Service

고객사 거버넌스 개선, CoE방식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자문, 스튜어드십 코드 대응감독당국·유관기관들과의 협업이나 Sponsorship 체결(Public Consultation)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기여할 것

앞으로도 삼정KPMG ACI는 양질의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투명한 사회를 위해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내부 감사기구에 대한 컨설팅, 교육, 자문의 One-stop Solution을 제공해 업계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한국 사회에 적합한 감사기구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촉진하여 기업지배구조와 회계 투명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성공적으로 이뤄가고자 한다.

삼정KPMG ACI에 대해 소개한다면?

김유경 전무(센터장)
youkyoungkim@kr.kpmg.com



심정훈 상무
jshim@kr.kpmg.com



"삼정KPMG ACI는 업계를 선도하는 최초이자, 최고의 감사기구 전문 조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 및 감사위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이 감사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며 마주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적인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여, 궁극적으로 감사위원회 뿐만 아닌, 전반적인 활동에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 선호되고 추천하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회에게 '경험' 측면을 강조하고자, 올해부터 ACI가 발간하는 주요 자료에 '모션그래픽'을 활용해 과거 줄글 형태의 자료보다 시각적이고 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션그래픽' 자료는 고객이 가장 익숙한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기 위해 'ACI 카카오톡 채널'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러한 ACI의 활동은 전사적인 고객과 관계 접점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입니다. ACI는 현재의 감사위원회 니즈를 고려해 미래의 감사위원회에게 다가가기 위해 고민하고, 업계를 선도하며 시장의 표준이 되는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아시아 프롭테크 리더로 성장 중인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

알스퀘어는 국내 대표 프롭테크(PropTech) 기업이다. 프롭테크는 부동산 자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 기술을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를 의미한다. 알스퀘어는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만에 수주매출액 1,200억 원을 넘어서며 승승장구 중이다.

○ 수년간 전수조사한 차별화된 부동산 DB로 시장 혁신 이끌어

알스퀘어는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이다. 인구 20만 이상 전국 업무 지역과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직접 방문해 전수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피스·물류센터·리테일 임대차 중개, 매입·매각 자문, 자산관리(PM), 데이터 애널리틱스, 인테리어·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내 프롭테크 기업 중 해외에서 성과를 내는 유일한 기업으로,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진출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알스퀘어가 현재 데이터베이스(DB)를 보유한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 건물은 30만 개를 넘어섰다.

알스퀘어는 글로벌 금리 인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에도 지난해 전체 수주 매출의 80%가량을 올해 상반기(6개월) 만에 달성했다. 오피스 중심의 임대차 중개 사업을 물류센터와 리테일로 확대하고, 인테리어 사업 포트폴리오를 오피스에서 호텔, 리테일, 건물 리모델링 등으

로 다변화하며 어려운 시장 상황을 극복한 것이 실적 개선의 배경이다. 신사업으로 추진하는 토지와 건물 매입·매각 자문과 데이터 애널리틱스, 베트남·싱가포르 등 해외 사업 등의 신사업도 순항 중이다.

○ 동남아 진출로 아시아 대표 프롭테크 기업으로 성장

알스퀘어는 국내 프롭테크 기업 중에선 유일하게 해외 시장에 진출해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알스퀘어베트남은 베트남 주요 지역 오피스, 리테일, 물류센터 등을 전수조사해 건물 5만 개의 DB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신한베트남은행과 협업해 고객들에게 상업용 부동산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베트남 현지 기업인 KCN베트남과 분양 대행·임대차 독점계약을 체결해 국내 기업에 공장·공단 정보 등도 공급 중이다. 대우건설이 하노이에 조성하는 신도시 사업 '스타레이크시티'에도 참여해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상업·주거·공업

지역을 전수조사해 6만 5,000개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 건물 DB를 구축했다.

동남아는 '제2의 중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 성장 여력이 풍부하다. 일례로 베트남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8%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정보 투명성이 낮고, 외국인이 투자하기에 우호적인 환경만은 아니다. 이 때문에 알스퀘어가 보유한 상업용 부동산 정보에 대한 고객 니즈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알스퀘어는 향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도 진출해 팬아시아 전체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 **‘부동산 모든 데이터 담는 회사’로 진화할 것**

알스퀘어는 보유 DB와 IT 역량을 통해 데이터 애널리틱스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업무·상업용 건물의 경우 주택처럼 시세나 실거래가, 매수·매도자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거래를 앞두고, 입지나 시세가 가격에 비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알스퀘어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서비스를 통해 오피스뿐 아니라 물류센터 등의 임대차·투자 시장 핵심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자는 공간 임대차, 매매 등에 쓰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알스퀘어가 보유한 DB를 활용할 수 있다. 이른바 ‘깜깜이 시장’으로 불렸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 책임 실천하며 ESG 경영 동참**

알스퀘어는 국내 프롭테크 회사 중 처음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UN Global Compact)에 가입했다. UNGC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족한 UN 산하 국제 협약이다. 인권, 노동, 환경 등을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며 160여 개국에서 1만 9,000여 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알스퀘어는 특히 기업의 가장 큰 사회적 책임인 고용 창출에 힘을 쏟고 있다. 9월 기준 알스퀘어 전체 임직원 수는 560명으로 지난 2018년보다 130.5% 증가했다. 고용 창출은 ESG 경영 평가의 중요 지표로 활용된다.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내 ‘ESG 위원회 발족’에 참여하고, SW산업 경영평가 모델 구축에도 동참 중이다.

자회사인 알스퀘어디자인은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최적의 작업 환경을 조성,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안전보건 경영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 안전보건경영팀을 신설해 지속해서 실천, 유지보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7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서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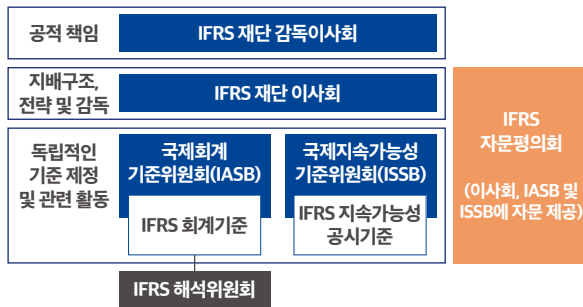
1. 알스퀘어 회사 내부 2. 알스퀘어 인테리어: 토스(toss) 리셉션 3. 알스퀘어 사내 봉사 동아리 '알타리' 구성원들의 모습



변화된 IFRS 재단의 지배구조와 그 시사점은?

IFRS 재단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를 중심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운용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재무보고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리고 지난 2021년 11월 'COP26'에서 G20, FSB, IOSCO, WEF 등의 지지 하에 IASB와는 별도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국제지속가능기준위원회(ISSB)의 설립을 공식화했다. 이는 업무 영역을 재무보고 기준에서 지속가능 관련 보고 기준으로 확장한 셈이다. 이번 호에서는 IFRS 재단의 변화된 지배구조와 이러한 변화로 주목할 점은 무엇인지 ESG 전문가를 통해 살펴본다.

Q1 IFRS 재단의 지배구조는 어떠한가요?



IFRS 재단의 지배구조는 3개의 층위(Tier)와 6개의 주요 기구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 층위인 IFRS 재단 감독이사회는 한국,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등 총 8개 기관으로 구성돼, IFRS 재단 이사회 이사 선임승인 등 IFRS 재단을 관리 감독합니다. 그 다음 IFRS 재단 이사회는 IASB, ISSB 위원임명, IFRS 재단 정관개정 승인 등을 역할을 수행합니다. 마지막 층위로 독립적인 기준 제정기관인 IASB와 ISSB가 있는데, IASB는 IFRS 회계기준을, ISSB는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을 제정합니다. 각 위원회는 모두 동일하게 오세아니아-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지역무관에서 선출된 각각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IFRS 자문평의회는 IFRS 재단 이사회에 전략 자문과 IFRS 회계기준과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기준 제정 자문을 제공하며, KPMG를 포함한 51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2 변화된 구조에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ISSB의 IFRS 재단의 지배구조상 위치입니다. ISSB는

IASB 산하 조직이 아닌, IFRS 재단 내 독립적인 기준 제정기관으로 ISSB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ISSB를 IASB가 가진 권위와 역할을 동등하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무보고와 지속가능성 공시는 하나의 기업 보고서로서 엄격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로 IASB와 ISSB 간에 연계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최근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와 재무정보와의 통합을 강조하는 요구에 따라 향후에는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간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아울러, IFRS 재단은 ISSB를 설립과 함께 Value Reporting Foundation (VRF), CDSB를 IFRS 재단과 합병하며, 실질적으로 GRI를 제외한 모든 지속가능 기준을 통합했습니다. 이는 IFRS 재단의 지배구조와 함께 과거에 복잡했던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은 IFRS 재단의 ISSB 공시기준으로 단일화되고 있으며, 향후 IFRS 재단의 ISSB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기준으로서 각 국가에서 수용되는 중요한 보고기준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 중국, 일본과 함께 2018년 IFRS 재단 내 모든 기구에 진출한 4개국 중 하나로서 다양한 국제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한국이 ISSB 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IFRS 재단 내 한국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위상과 국제적인 활동으로 향후 회계기준 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한국 경제 산업구조의 특성,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SG CoE 황정환 상무

Tel. 02-2112-0462 / E-mail. jeonghwanhwang@kr.kpmg.com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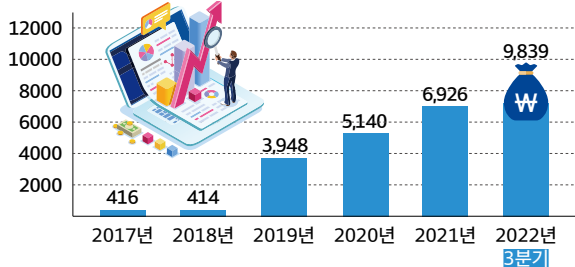
최근 시사, 경제 이슈에 대해 살펴보는 '맛있는 경제'에서는 스피백 효과와 친환경 연료인 지속가능 항공연료에 대해 배워보려 한다. 아울러,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들의 역대급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2022 유턴기업 투자 규모 '역대 최대' ... 1조 원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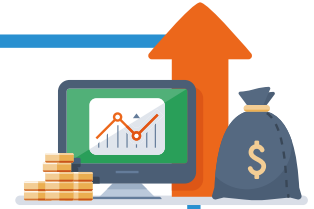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의 투자계획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1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까지 국내 복귀 기업의 투자계획 규모는 9,839억 원으로, 작년(6,926억 원)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투자액에서 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6,958억 원)이었다. 올해 국내에 복귀한 기업 수는 21개 사로 대중견기업은 38.1%(8개 사)이며, 지난 2021년에 국내 복귀 기업 수는 26개 사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 중 공장 신축증 없이 기존 국내 공장 내에 설비를 도입한 기업도 국내 복귀로 인정하고, 신용보증기금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 국내 복귀 지원제도를 확충해 가고 있다.

국내 복귀 기업 투자 규모 추이
(단위: 억 원)



*유턴기업: 값싼 인건비를 찾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에서 유턴이란 수식어가 붙음.

스필백 (Spill Back)



부정적 파급 효과인 스피오버(Spill Over)가 부메랑처럼 돌아와 더 큰 손해를 미치는 현상이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달러화 강세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스피오버라면,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나 수요 감소 등이 미국 경제에 다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스피백이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당국도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강달러 기조가 세계 다른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피오버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며, "과거 경험이나 달러가 차지하는 위치를 볼 때 (미국도) 해외에 미치는 스피오버와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는) 스피백 현상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속가능 항공연료 (Sustainable Aviation Fuel)



지속가능 항공연료 (Sustainable Aviation Fuel, SAF)는 기존의 석유 항공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연료로 생산한 항공유를 의미한다. 주로 동·식물성 기름이나 폐식용유, 사탕수수, 해조류 등 친환경 연료로 만들어진 항공유다. 기존 항공유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원료 수급부터 소비까지 탄소 배출량을 기존 항공유와 비교해 최대 80%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보조금과 연방 세금 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SAF 생산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항공,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항공업계도 강화되는 ESG 기조에 발맞춰 SAF 시장 진출을 선언하고 있다. 반면 높은 가격 탓에 일부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Happy workplace



삼정별그램

Good-Bye 2022,
올해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20

People First I

회의실 명칭
자녀 초청 행사 “야호! 엄마,
아빠 회사에 내 이름이!”

22

People First II

일과 삶의 균형으로 행복 찾기!
법인 제공 콘도에서 휴식하며
에너지 얻어요!

24

삼정인터뷰

나눔 온도 Up!
나누면 행복이 두 배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감사의 위력 28

Samjong News

‘납세자축제’에서
‘납세자권익대상’ 수상 외

心 Care

내 마음의 거울을 보는 시간
자신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30

32

Good-Bye 2022, 올해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은?

어느덧 2022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삼성인들에게 2022년은 어떤 한 해였을까? '삼성별그램' 이벤트를 통해 삼성인들의 올해 최고의 순간을 함께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봤다.

첫 하프마라톤을 완주했을 때

강민지 Associate (CM2)

법인에 입사하면서 러닝을 시작하고, 올해 안에 꼭 하프마라톤을 완주하겠다고 다짐했는데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비록 좋은 기록은 아니

지만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결승선을 넘었던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행복하고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제1회 챔피언십'의 짜릿했던 순간!

유영진 S.Manager (Tax6)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본부원 간 소통이 간절하던 와중에 열린 '삼성KPMG 챔피언십' 덕분에 본부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응원하며 서로 하나 됨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준결승전 마지막 18홀(3:3)에서의 위닝샷(퍼팅)이 홀컵에 들어가면서 모두 함께 손을 맞잡고 기뻐하던 순간이 가장 떠오르네요! 1:3으로 뒤지고 있다가 동점을 만들고 난 후 이뤄낸 짜릿한 역전승이다 보니 기쁨이 더 배가 되었던 것 같아요. ^^ 그리고 필드에서 치러진 최종 결승전에서 우리 본부는 결국 초대 우승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첫 출근, 첫 필드, 그리고 처음 팀원을 만났을 때

김승현 Associate (IM2)



수험생활 이후 처음으로 맞는 직장에서의 첫 팀은 신입 회계사에게 설렘과 불안함이 모두 공존하는 순간이에요.

그러한 불안함과 설렘이 감사함으로 변하게 해준 저의 첫 팀을 만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입니다. 신입으로 많이 부족한 행동을 보일 때도 항상 격려해주고 더 좋은 방향을 알려주는 저희 팀원분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팀을 만나게 해준 삼성KPMG에도 감사합니다. 사진은 첫 필드 테라스에서 사이가 너무 좋아 보인다고, 클라이언트가 찍어 주셨어요. 마치 드라마 '미생'의 한 장면 같네요. 하하.

올해 마지막 가을을 만끽한 순간

박소은 S.Consultant (RCS)



은행나무길에서 올해 마지막 가을을 만끽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3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한 해가 정말 바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잠시 멈춰서 가장 좋아하는 계절인 가을의 끝자락을 온몸으로 느끼며, 남은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다가올 내년도 삼성에서 열심히 달릴 힘을

얻을 수 있는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빅웨이브를 탄 순간!



발리에서 서핑을 시작한 첫날 생각보다 큰 파도에 포기할까 생각도 했지만 용기내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라인업*한 결과, 멋진 파도를 만나 타면서 느끼는 행복함으로 파도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짜릿합니다!

장해주 Manager (ICE1)

올해 최고의 순간은 서핑의 성지인 발리 꾸따 비치에서 제 키보다 큰 파도를 탄 순간입니다! 2년 전 우연히 서핑을 접하고, 그 매력에 빠져 계속 서핑을 해왔는데, 이번에 하늘길이 열려 여름에 인도네시아 발리로 서핑하러 다녀왔어요. 사실 초보 서퍼 시절에 거친 바다에 들어갔다가 보드에 부딪혀 다친 적 있어 큰 파도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어요. 때문에

*라인업: 파도를 타기 위해 파도가 부서지지 않는 바깥쪽으로 향해 가는 것을 말하며, 파도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곳



회계사 2차 시험 합격의 순간!



20대 청춘을 바친 시험의 결과가 합격으로 끝나서 너무 행복했고,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기뻐했습니다.

박태현 Associate (IM2)

8월 25일은 2022년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최고의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날은 바로 회계사 2차 시험 결과를 발표날이기 때문인데요. 점수를 본 순간 그동안 서러웠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그 자리에서 펄펄 울었습니다.



소중한 아들이 태어난 날



서 발행이 몰리는 시기로 아내와 병원에서 대기하면서 열심히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병실에서 리뷰 대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행복할 따름입니다.

문범주 Manager (CM1)

올해 3월 4일 저의 소중한 아들이 태어난 날입니다. 올해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3월 4일이면 예상하시겠지만 보고

명함과 사원증을 받은 날!



2022년 10월 24일 명함과 사원증을 받은 날이 올해 최고의 순간입니다. 저는 2021년 12월 - 2022년 3월까지 삼정KPMG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인턴 마지막 날 꼭 다시 돌아와 삼정KPMG에서 일하고 싶었는데요. 2022년 10월 11일 그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명함과 사원증을 받았고 그날이 올해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박예진 Associate (IA)



회의실 명칭 자녀 초청 행사 “야호! 엄마, 아빠 회사에 내 이름이!”

인재 존중 문화를 추구하며, 2022년 강남파이낸스센터(GFC) 내 모든 업무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로 탈바꿈했다. 스마트 오피스를 새롭게 구축하며 회의실 이름을 구성원들의 자녀 이름으로 선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했다. 총 134개의 회의실명에 자녀 이름이 선정됐으며,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가족 및 자녀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자.



○ 이제 우리도 명예사원! “엄마, 아빠 회사에 내 이름이 있어 신기해요!”

삼성KPMG는 새롭게 스마트 오피스 공간에 구성원들의 가족과 자녀들을 초청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스마트 오피스 회의실명에 자녀 이름이 선정된 구성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총 3일간 4차례에 걸쳐 개최됐다. 행사에 참석한 자녀들 모두에게 삼성KPMG 명예사원증을 증정

했다. 또한, 참석한 구성원들과 가족들은 스마트 오피스를 영상으로 먼저 살펴본 후, 스마트 오피스 공간을 직접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자녀의 이름이 새겨진 회의실 앞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등 추억을 남겼다. 이날 촬영한 사진은 액자로 만들어 선물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KPMG는 자녀 이름이 새겨진 회의실명과 동일한 이름의 자녀를 지닌 구성원들에게도 회의실명 기념 명패를 제작해 전할 계획이다.

명예사원증을 품고 잠이든 두 아이들!

- 김태유 S. Manager (Lighthouse Center)

KPMG US에서부터 지금까지, KPMG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결혼과 출산인데요, 두 자녀 모두 KPMG와 함께 동행해왔다는 생각에 회의실 자녀 이름 이벤트에 참가했어요. 그리고 기쁨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날 아이들은 명예사원증을 선물 받았는데, 4살인 첫째 다운이와 2살인 둘째 아윤이 모두 명예사원증을 들고 잠들 정도로 정말 좋아했어요. 다운이가 어린이집 가서 자랑할 정도로 인상을 깊게 받은 것 같아 저도 기쁩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인 내에서도 멋진 프로페셔널로 거듭나겠습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 받은 날!

- 김주현 Manager (IT Audit)

2022년 6월 19일 사랑하는 딸 리하가 태어났는데, 이번 이벤트는 아이에게 좋은 탄생 선물이 되었어요. 이번 기회로 가족이 멋진 오피스 공간에 방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리하 회의실이 있는 11층 로비에 심겨진 생화는 법인과 함께 자란다는 의미라고 해요. 리하 생일과 오피스 준공일 차이가 크지 않는데, 식물 성장을 보며 법인과 아이의 성장을 함께 지켜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기대가 되더라고요.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준 법인과 이벤트를 준비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도 법인에서도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회사 최고!"라며 기뻐한 아이들

- 권민정 Director (Q&RM-DPP)

우리 회사에 둘째 아이의 이름이 새겨진 회의실이 생기니 매우 뿌듯합니다. 아이들 역시 정말 기뻐했는데요, 스마트 오피스를 보더니 '엄마 회사 최고!'라며, 엄마가 멋진 일을 한다고 생각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도 이번에 받은 명예사원증을 걸고 회사에 출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네요. 하하. 저는 워킹맘으로서 업무와 가정을 모두 신경 쓰느라 '회사에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더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가족 이벤트를 마련해줘서 정말 고마웠고, 존중받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삼정KPMG와 함께 Big1으로 성장하며 자랑스러운 아내, 엄마로서 더욱 성장해 가겠습니다.



더 잘 해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생겨

- 이경은 S. Manager (Deal Adv3)

6살과 3살인 두 아이들에게 이번 기회로 짧게나마 엄마가 일하는 공간을 보여주고,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줄 수 있었어요. 특히, 첫째는 늘 회사에 가지 말거나, 갈 거면 일찍 오라고 당부하는데 회사에서 준 간식이 맛있고, 의자가 편해 보인다면 이런 환경이면 '1년에 한 번 쉬어도 되겠다'고 하네요. 하하. 남편은 회사 분들 모두 배려가 있다고 하여, 함께 일하는 삼정인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로 가족에게 제 일과 업무 환경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덕분에 일터에서도 더 잘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도 생겼네요. 삼정KPMG의 모든 워킹맘&워킹대디 파이팅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으로 행복 찾기! 법인 제공 콘도에서 휴식하며 에너지 얻어요!

People First: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삼정KPMG는 임직원들의 Work & Life Balance 향상과 법인 생활의 즐거움을 높이는 콘도 예약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도, 문경, 경주, 여수, 거제, 제주도 등 대한민국 주요 관광 명소 곳곳에 위치한 콘도 객실 예약을 지원하고 있으며, 저렴한 금액의 회원가로 숙소를 즐길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 제공 콘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얻고 온 삼정인 3인방을 소개한다.



리조트 내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즐기고 따뜻하게 스파를!



확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리조트 거실

어깨가 으쓱! 최상의 숙소에서 여름휴가를!

- 백명중 Director (IM3)

지난 8월, 제주도 아트빌라스 콘도에 당첨되어 가족과 또 친구네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낮에는 아이들과 물놀이를 즐기고, 저녁에는 제주도 맛집을 찾아 다니는 등 두 식구 모두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맛을 온전히 즐긴 여행이었죠. 무엇보다 처음 숙소로 들어갈 때 모두 우아! 탄성을 자아내며 감탄한 모습에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식구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해준 법인에 대한 자부심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때마침 여행 마지막 날이 결혼기념일이라, 아내에게 오랜만에 점수도 얻었죠.

아트빌라스는 복층 구조로 1층은 침실 공간, 2층은 TV를 보며 음식을 즐길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됐어요. 그리고 2층 외부에는 작은 스파 시설과 별채가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리조트 내에는 야외 수영장이 있는데, 생각보다 크진 않아 성인들보다 아이들이 즐기기에 좋아요. 아 참! 리조트 수영장에서 파는 감귤피자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이외에도 제주도 맛집을 추천하자면 제주도 명물인 고기국수를 맛볼 수 있는 자매국수, 제주도에 유명한 숙성도 고깃집, 서귀포 동광리에 위치한 고바진 고깃집 등이 있습니다. 모쪼록 많은 삼정인 분들도 법인 콘도 당첨을 기회 삼아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삼정KPMG는 구성원들의 워라밸 향상과 여가 생활에 활용하도록 제주, 평창, 삼척, 양양, 경주, 여수 등 전국 주요 콘도의 객실 예약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년에 2회 활용할 수 있으며, 임직원 본인이 아니더라도, 임직원의 가족도 사용 가능하다.



문의: 총무팀 박유진 부장(02-2112-0098, ypark@kr.kpmg.com)/
김종환 직원(02-2112-0064, jonghwankim@kr.kpmg.com)



함께 여행을 떠난 아내의 모습,
리조트 내 포토존에서



문경으로 가는 길, 곳곳이
단풍으로 아름다웠다



카페에서 즐긴
디저트 타임

아내와 함께 떠난 가을 태교 여행!

- 안태인 Manager (Tax4)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내년 4월에 태어날 밤비(아들 태명)와 함께 문경에 있는 STX 리조트로 가을 태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문경 STX 리조트의 경우 룸 사이즈가 스위트룸으로 방 2개에 거실 하나로 구성되어있는데, 탁 트인 넓은 공간이 기분 좋게 해주더라고요. 지하에는 편의점, 오락실, 카페 등이 있었고, 무엇보다 산책로가 잘 마련되어 자연을 느끼며 한적하게 산책할 수 있어요. 단, 도심과 거리가 있어서 효율적인 여행을 위해 도심 구경을 하고, 장도 미리 봐서 숙소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번에 문경의 맛집과 관광 명소 리스트를 만들어 갔는데요, 혹시나 삼정인분들에게 팁이 될 수 있도록 리스트 일부를 공유합니다! 관광 명소는 '봉천사', '불정역', '단산모노레일', '문경새재 도립공원', '미로공원', '고모산상', 카페는 '카페선일', '문경까브', '진스초콜릿' 정도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문경이라는 도시가 한적한 분위기가 더욱 힐링할 수 있었고, 하루하루 바쁜 삶에 여유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번 기회로 심신을 달랠 수 있었고, 이 좋은 에너지로 법인에 더욱 기여하는 전문가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마음에 평안을 얻은 여행

- 김민성 과장 (파란행복)

저는 지난 10월, 강원도 삼척의 쓸비치 리조트에 가족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먼저, 리조트 시설은 깨끗했고, 숙소와 부대시설이 조금 떨어져 있던 했지만 각 숙소의 건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리조트를 둘러보는데 편리했습니다. 무엇보다 쓸비치 특유의 포토존이 곳곳에 위치해 추억 남기기에 좋았고, 그리스 산토리니와 같은 파란색 지붕이 멋스러웠습니다. "소중한 것을 깨닫는 장소는 언제나 컴퓨터 앞이 아니라 파란 하늘 아래였다. - 타카하시 아유무(여행 작가)"라는 말처럼 이번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좋은 에너지를 얻고 돌아왔어요. 특히, 여행 후 복잡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평안해지는 듯해요. 혹시 나중에 삼척 쓸비치를 가게 될 삼정인이 있다면 삼척 해상케이블카와 평창 대관령 삼양목장을 여행 장소로 추천하고 싶어요. 먼저, 삼척 해상케이블카는 장호항의 시원한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고, 투명한 바다를 만끽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울러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삼양목장은 드넓은 초원과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양들과 동물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아이들이 참 좋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인 덕분에 가족 여행을 즐길 수 있었고, 앞으로도 혜택 받을 콘도 지역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쓸비치 리조트 곳곳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아내 & 아이와 함께



여행 중 들린
삼양목장에서



리조트 내 미끄럼틀을
즐기는 세쌍둥이

나눔 온도 Up! 나누면 행복이 두 배

옷깃을 여미는 강추위에도 마음만은 훈훈한 삼성인들이 있다. 이들은 나눔 활동을 통해 나눔의 참 의미를 깨닫고, 기쁨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삼성KPMG에서 한 해 동안 진행해온 사랑나눔 활동에 대해 살펴보고, 봉사와 기부 활동에 참여하며 나눔의 온도를 높이고 있는 삼성인 3인방을 만나본다.

할 미니 칼림바, 아크릴 무드등, 트리케 이름표 제작 등을 진행했다. 또한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진행한 환경 팝업북 만들기 등을 진행함은 물론, 건강한 도시 숲을 만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토리 씨앗을 심고 묘목을 키우는 비대면 숲 만들기 봉사 활동도 전개해왔다. 아울러 튀니지, 몽골, 캄보디아 등 해외 소외계층을 위한 헌 옷을 기부하며 자원순환은 물론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는 '꿈을 Dream Project' 재능기부 활동도 전개해왔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룹홈 아동·청소년 심리재활 및 자립 코칭 프로그램, 발달장애인 훈련생 대상 심리재활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지원사업 운영, 새 학기 준비 장학금, 뇌병변 장애아동 치료비, 위기가정 긴급 지원금, 장애한부모 가족 밀반찬 지원 등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의 의료비와 교육 혜택도 지원했다. 이외에도 연말 맞이 김장, 연탄 나눔을 위한 후원 활동도 펼쳤다.

앞으로도 삼성KPMG는 삼성사랑나눔회를 통해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으로 임직원 및 가족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나아갈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대면 봉사 활동도 점차 진행할 예정이다.

○ 비대면 봉사 및 재능 기부 등 임직원 및 가족 723명 봉사 참여해

삼성KPMG는 삼성사랑나눔회 운영을 통해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다채로운 사랑나눔 활동을 전개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올해는 723명의 임직원과 가족, 지인들이 나눔 활동에 참여했으며 봉사 활동 및 재능 기부, 지원 사업, 정기 후원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법인 사회공헌 기부 금액은 448,814,480원이다. 아울러,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복구 성금 1억 원,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아동과 가족을 위한 긴급구호 기금 5만 달러를 국제 아동구호기구인 유니세프에 전달하는 등 국내외 긴급 지원에도 힘썼다. 또한, 신청자에 한하여 임직원들은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며,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봉사 활동도 활발히 전개해왔다. 시각 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촉각 단어카드 만들기,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선물





아이와 함께라서 더 의미 있던 나눔 힐링 타임! - 이연화 Manager (Tax5)

입사한 지 몇그레 같은데 벌써 1년이 흘렀네요. 저는 그동안 봉사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쉽사리 실행하지 못했는데 법인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 쉽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점자축각 단어카드, 환경 팸업북, 헌 옷 기부, 아크릴 무드등, 트리케 이름표 만들기에 참여했어요. 특히, 7살 딸 아이와 함께해서 더욱 기억에 남아요. 점자축각 단어카드와 환경팸업북을 함께 만들며, 점자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우리가 왜 복귀금을 생각해야 하는지, 뜨거운 지구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게 올해 나눔 활동은 힐링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과 고민이 많은 바쁜 일상에서 생각을 잠시 멈추고, 몸과 손을 움직일 때 힐링이 되었고, 활동 작품이 완성되면 뿌듯함과 보람으로 또한 번 힐링 되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사랑나눔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으로 꾸준히 참여하려 합니다. 특히, 입사 1년이 되는 시점에 의미 있는 인터뷰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맡은 업무를 충실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나눔을 통한 색다른 즐거움! - 송성화 Manager (ICe3)

제게 나눔 활동은 색다른 즐거움입니다! 사랑나눔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는데 법인에서 진행 중인 사랑나눔 활동에 참여한 덕분에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작업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올해는 '아크릴 무드등 제작', '미니 칼럼바 제작', '환경 팸업북 제작', '비대면 숲 만들기' 총 4회에 걸쳐 사랑나눔 활동에 참여했어요. 주말이나 퇴근 후 제게 주어진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물건을 만든다는 게 저를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일시적으로 잊고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사실, 현재 임신으로 휴직 중인 아내가 나눔 활동을 추천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작한 나눔 활동을 앞으로 새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나눔 활동으로 실천해보고 싶어요! 아울러, 법인 생활도 지금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나눔의 시작 - 김민재 S.Senior (Tax3)

대학교 시절, 친한 친구가 어린이 후원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 아이가 써준 편지를 받고 행복해하는 친구를 보고 감명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기부 활동에 참여하면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직하면서 '새로운 출발', '더 나은 사람이 되자'는 의미로 월급의 일부를 매월 기부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분야에 기부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 여러 분야에 기부금이 사용되는 삼성사랑나눔회를 통해 기부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동안 저는 기부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번쯤 해야 하는 과제라고 여겨왔는데, 다만 귀찮고,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등의 변명으로 미뤄왔는데, 클릭 몇 번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비교적 쉬운 과제였구나 싶더라고요. 이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 제가 받은 것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사회 모든 사람들이 부유해질 수는 없겠지만 모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삼성사랑나눔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싶고, 아직 부족함 점이 많지만, 열심히 배우고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백신이다
감동을 이기는 게 감사다”

감사의 위력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 영국문화협회 (British Council)가 세계 102개 비영어권 국가 수만 명을 대상으로 70개 단어를 제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1위는 ‘어머니(Mother)’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다.

감사(感謝)는 인생의 항체

어원을 보면 ‘감사하다(thank)’와 ‘생각하다(think)’는 그 유래가 같다. 독일어로 보아도 ‘danken(감사하다)’은 ‘denken(생각, 사색하다)’에서 온 것이라 한다. 즉, 감사는 생각하고 헤아려 보라는 것으로 결국 생각하는 사람만이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의도된 감사라 할지라도 효과가 있다는 점으로 이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종교적으로 인용되는 감사의 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는 ‘감사할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오늘 하루만, 오늘 하루만 더...”를 간절히 외치는 수많은 사람이 병원에 있다. 중환자실에 가보게 되면 당근 느끼게 되는 일이지만, 지금 숨 쉬고 있는 것조차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감사는 과학적 실체이며, 한마디로 인생의 항체다.

서양 속담 중엔 이런 명언이 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세상과 고립되어 있는 감옥과 수도원이 다른 게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뿐이다. 유태인의 경전 『탈무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형벌인 셈이다.

행복을 여는 대문

실제로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긴다. 따라서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쉽게 재생되는 에너지이자 만병통치약이다. 한 사람의 인간성 또한 감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행복은 감사와 불가분의 관계다.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했듯이, 감사한 만큼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요컨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에 정비례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 둘 일이다.

또 한 가지, 행복이나 불행의 판단 기준, 즉 행복의 잣대는 각기 다르다는 사실이다.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 황제는 죽을 때 “내 생애에서 행복한 날은 6일 밖에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눈이 멀어 볼 수 없었고 귀가 먹어 들을 수 없었던 헬렌 켈러는 “내 생애에 행복하지 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고 말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았던 그녀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Three days to see)>을 읽어보면 누구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인생 최고의 학위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밥사자격증’이란 게 있다. 석·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밥사’다. 까칠한 세상에서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마음은 석·박사보다 더 높다는 인생의 학위다. ‘밥사’보다 높은 것은 ‘감사’이고, 감사보다 더 높은 것은 ‘봉사’라고 한다. 그리 보면 인생 최고의 학위는 감사와 봉사인 셈이다.

감사의 위력은 놀라운 수준이다. 실제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나타났다. 당연히 금메달리스트가 가장 만족도가 높을 것 같지만, 더 높은 만족도를 느낀 사람은 동메달리스트였다고 한다. 같은 메달리스트라 할지라도 두 사람의 눈물은 그 화학 성분이 다르다. 금메달에 감격이 있다면 동메달에는 감사가 있다. 아마도 천 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의 심경이리라.

감동을 이기는 것이 감사다.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매우 다양한 경력을 거친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 강사로도 유명하다. 또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 저자이자 교보 광화문출판 선정(2022년) 작가이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독창적인 초미니 칼럼 (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지식과 사색의 아포리즘 결정체다.



내 마음의 거울을 보는 시간 자신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는 것이 좋을까?



2022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연말을 맞이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 얼마나 주기적으로 자아 성찰하면 좋을지, 자아 성찰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해 들어본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2022년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켜 보며 어떤 생각을 하는가? 좋았던 점들, 아쉬운 점들, 개선하고 싶은 점들... 떠올리다 보면 '나'에 대한 생각으로 흐를 때가 많을 것이다. 기존의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잘 기능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자기 인식과 통찰, 즉 자신에 대해 열심히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왔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인식을 구성하는 내용이 긍정적일수록 그 사람은 행복해지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기도 하다.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수록 발전이 없을 테니,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한다. 어느 정도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적정 수준일까?

거울 속 내 모습을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거울 속 내 모습이 꽤 만족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얼굴 구석 구석 살피다 결점들이 눈에 띌 때도 있을 것이다. "웃을 때 한쪽 입이 삐뚤어지네? 내 피부가 이렇게 푸석푸석했나? 다크서클이 왜 이렇게 짙지?"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평소에 의식하지 않았던 신체 일부가 보일 수 있다. 더군다나 다크서클이라는 것이 뭘지 모를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다크서클이라는 증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나서, 그리고 나에게도 다크서클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의 다크서클만 눈에 들어올 것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모를 때는 막연하게 '괜찮겠거니' 혹은 '그냥 힘들다'고만 여기다 "이런 심리 상태는 000라고 할

“적당한 수준에서 참고한다면 새로운 잣대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에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부분에 과하게 초점을 맞춰 확대해서 본다면, 너무 오랜 시간 들여다보는 것은 정신건강에 소모적이다.”



수 있습니다”라는 일종의 진단명 혹은 증상에 대해 듣고 나면 그때부터 그 진단에 일치하는 자신의 행동들이 더욱 눈에 띄거나 혹은 그 진단에 해당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낙인효과(부정적인 평가로 낙인을 찍고 나면 그 후에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현상)’를 보일 수 있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명을 들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는 긍정적인 경우도 있다. 일조량이 줄어드는 늦가을부터 우울한 기분이 많이 들다 봄이 되면 회복이 되는 증상을 몇 해 동안 반복적으로 겪은 A씨는 자신의 증상이 “계절성 정동장애(계절의 흐름을 타는 우울증의 한 종류)”와 유사하다는 진단을 들은 후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한다. 늦가을만 되면 영문 모를 울적함에 시달리는 듯한 기분이었으나, 이제는 그 이유와 특성을 제대로 알고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특정 진단 카테고리 이름을 붙이며 과잉 일반화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B씨는 자신의 MBTI를 알고 나서는 자신의 성격과 행동을 하나하나 MBTI에 대입시키곤 했고, 더불어 자신의 성향이 인기 드라마에서 다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에도 부합하는 듯해 현재의 어려움, 과거 대인관계에서의 갈등을 불필요할 정도로 곰곰이 떠올려보기 시작했다.

적당한 수준에서 참고한다면 새로운 잣대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에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다. 그만큼 내가 어떤 모습인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부분에 과하게 초점을 맞춰 확대해서 본다든가, 너무 오랜 시간 들여다보는 것은 정신건강에 소모적이다.

사람만큼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자기 고찰 (self-reflection)’ 능력을 가진 동물은 없다고 한다. 이 능력이 있기에 사람은 과거의 일들을 지칭 삼아 미래의 일을 발전적으로 계획하고, 현재를 더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 능력 때문에 자신과 타인에 대해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하며, 스스로에게 가혹해지기도 한다. 자존감이 높아야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다며 서로 자존감의 높고 낮음까지 비교하는 사회에 던져진 것이다. 자아정체성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마크 리어리는 집착에 가까울 정도의 자기 고찰과 후회를 멈추고 내면의 자신을 조용히 시키는 ‘자아 꺼두기’를 해야



한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정해진 기준대로 자기 통제와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미치는 자신의 영향력을 무디게 하며 내면의 목소리를 조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기존 칼럼에서 소개했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명상법을 활용해도 좋고, 의식적으로 내면의 목소리의 소리를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다.

특정 부분들에만 초점을 맞춰 거울을 살피다 보면 정작 그 거울을 보는 나의 전체 모습을 놓치기 쉽다. 외출 전 옷매무새를 점검하며 한 번 거울을 보듯,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반성하는 것도 그 정도로만 해두자. 우리에게 2023년의 새로운 거울이 기다리고 있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 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납세자축제’에서 ‘납세자권익대상’ 수상



삼정KPMG가 12월 6일 조세일보가 주최한 ‘납세자축제’에서 ‘납세자권익대상’을 수상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으며, 시상식 현장에서 세무자문부문 윤학섭 대표가 법인 대표로 수상했다. 삼정KPMG 세무자문부문은 조세 전문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국세청 출신 전문가, 경제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세무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응 전략 등 종합적인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9회 콘텐츠 산업 세미나’, 디지털자산 주제로 개최



삼정KPMG가 11월 15일 강남구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게임 및 미디어, 플랫폼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제9회 콘텐츠 산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재 콘텐츠 기업들의 디지털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영역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회계 및 세무 이슈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부재해 이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세미나에서는 게임 및 미디어, 플랫폼 등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비즈니스 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 콘텐츠 산업의 재무 담당자들이 접할 수 있는 회계 및 세무 이슈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Contact: 강승미 상무 (seungmikang@kr.kpmg.com)

‘부동산 산업 투자 전략 세미나’ 열어



*Contact: 권준오 상무 (junohkwon@kr.kpmg.com)

지난 11월 22일 강남구 역삼동 삼성KPMG 본사에서 ‘부동산 산업 투자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본 세미나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을 주도한 물류센터와 오피스 외에 향후 주목해야 할 섹터를 전망하고 투자 방향성을 제시했다. 아울러, 불안정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과 NPL 상품 대응 방안도 함께 살펴봤다. 한편 삼성KPMG 부동산자문서비스는 Deal Advisory부문 내 3개 본부에서 ‘부동산 전문팀제’를 운영하며 시장, 경제, 법적 관점을 통틀어 부동산 최유효 활용 방안을 자문하고 있다. 업무용,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이해도가 탁월한 산업 전문가들이 기업 부동산과 오피스 매입·매각 분야에서 성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제7회 IPO 성공전략’ 세미나로 성공적인 IPO 전략 제시



*Contact: 윤주현 상무 (joojunyoon@kr.kpmg.com)

삼성KPMG가 11월 29일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기업공개(IPO) 예비 기업을 대상으로 ‘제7회 IPO 성공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IPO를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회계 및 세무 이슈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질적심사요건과 내부통제 측면의 준비사항을 포함한 성공적인 IPO 전략을 제시했다. 한편, 삼성KPMG 감사부문 한은섭 대표는 “급변하는 대내외 시장 환경에서 성공적인 IPO를 위해서는 향후 직면할 회계처리 및 해석에 대한 감독 강화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의 상향 등 제도와 규제에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KPMG·하나은행, M&A Deal Sourcing 위한 MOU 체결



삼성KPMG가 하나은행과 전략적 업무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M&A 및 Financing Deal 자문 확대에 나섰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KPMG는 하나은행의 전국적인 534개 지점(영업직속PB센터 10개, 영업직속기업센터 11개 포함) 네트워크를 활용해 M&A 및 Financing Deal 자문 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협약을 통해 고객의 M&A, Financing 니즈(Needs)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Deal closing 이후 거래대금의 유치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삼성KPMG·SK 공동으로, SK그룹사 M&A 실무교육 진행



삼성KPMG가 SK그룹과 공동으로 SK그룹사 M&A 실무교육을 개설했다. 11월 28일부터 12월 5일 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M&A, Due Diligence, Valuation, PMI의 이론을 배우고, 실습 과정을 통해 실무 활용법을 습득하는 교육 과정으로 준비됐다. 본 교육에는 삼성KPMG 김이동 부대표, 김일훈 전무, 양진혁 상무 등 11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으며, 외부 강사로는 바이오투자센터 이동훈 센터장과 법무법인 세종 최충인 변호가 각각 SK 투자 성공 사례와 주요 법률 사항과 쟁점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 박진화 팀장이 '외부 인수금융 전문가' 세션을 진행했으며, STIC 이진형 수석심사역은 PEF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한편, 삼성KPMG는 이번 SK그룹사를 시작으로 M&A 실무교육이 필요한 여러 기업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포럼, 'MZ세대의 공정과 조직 문화' 주제로 서울대 신재용 교수 강연 진행



삼성KPMG는 지난 11월 16일 '삼성포럼'을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신재용 교수가 'MZ세대의 공정과 조직문화: 공정한 보상'이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으며 법인에서 점점 비중이 높아지는 MZ세대가 원하는 '공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재용 교수는 MZ세대가 원하는 공정이란, '철학적인 차원'이라기 보다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매우 실용적인 차원'이며, 평가 보상제도는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의 보상제도는 인건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하며, 구성원에게 성장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몽골 오피스 승진자 삼정KPMG 본사 방문, 성장 위한 포부 다져



지난 11월, 삼정KPMG 자회사 KPMG 몽골 오피스 승진자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몽골 오피스 승진자들은 삼정 KPMG의 스마트 오피스를 둘러보고, 팀 미팅을 통해 한국 실무진들과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KPMG Value 및 리더십 교육 과정을 수강하며 커리어 발전을 위한 포부를 다졌다. 특별히 11월 11일에는 인천 강화도로 당일 여행을 떠나 한국의 음식과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삼정KPMG는 몽골 오피스 승진자 본사 방문을 비롯해, 3개월 몽골 단기 파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몽골 오피스와의 교류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사랑나눔]

연말 맞이 이웃사랑 실천, 김장 및 연탄 나눔 후원

삼정KPMG가 연말을 맞이해,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전하기 위한 김장 및 연탄 나눔 후원을 전개했다. 지난 11월 16일, 삼정KPMG 후원으로 서울시 대한적십자사 관악지구 봉사원이 직접 4,000kg 김장 김치를 담가, 서울시 동작·관악구 취약계층 400세대에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아울러, 서울 시내 연탄으로 생활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50가구에 연탄 총 1만 장을 후원했다. 한편, 지난 FY21 최우수 본부상을 수상한 Deal Adv5분부는 포상금 1,000만 원을 기부하자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송년 행사로 본부원 100명이 사랑의 연탄나눔운동과 함께 개포동 구룡마을에 연탄 기부 및 배달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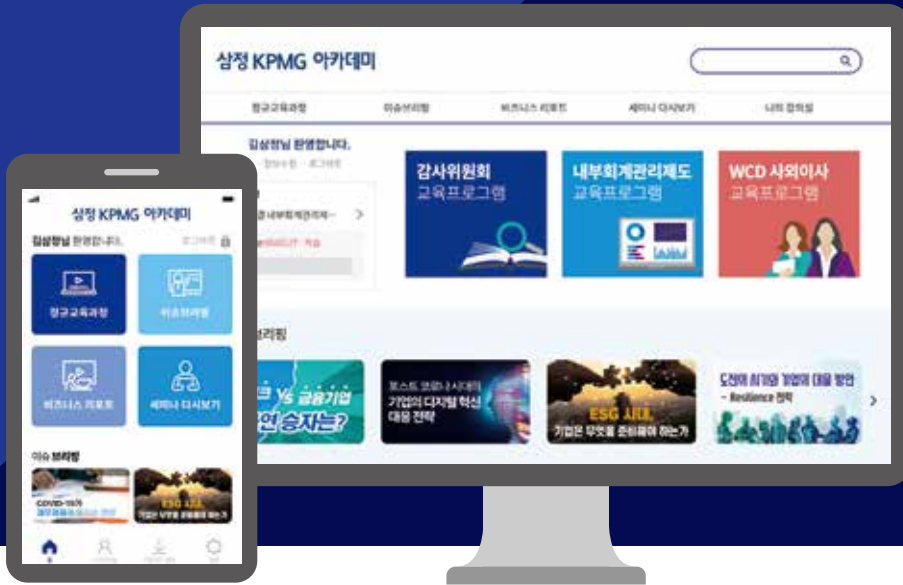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